

알프스 염소 삶 체험기 '염소 인간' 인기 자율주행차·미래 쇼핑 체험도 흥미진진



누에고치로 만든 태국 앙고사의 조형기구 '트랜시버 스페이스'

23일 폐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꼭 봐야 할 작품

지난달 막을 올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관람을 미뤘다면 서둘러 전 시장을 찾아보자. 오는 23일 폐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 중 관람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작품, 의미있는 작품들을 골라 소개한다.

16일 오전 방문한 전시관에는 유치원생부터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까지 다양한 단체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다. 또 홀로 전시를 관람하며 작품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보는 이들이 보였다.

영국 디자이너 토머스 트웨이츠의 '염소 인간'은 관람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작품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관련 영상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였다. 작가는 다른 동물이 돼 보자는 생각에 신경과학자, 동물행동학자, 의수족제작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기구를 제작하고 알프스 염소목장에 찾아가 이틀간 직접 염소가 돼 생활했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제작한 3가지 기구와 영상 등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책 '염소가 된 인간'이로 출간됐으며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노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시 공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평화롭게 유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주거 시스템 '걷는 집'도 눈에 띈다. 또 사용자의 삶의 조건에 맞춰 자연거를 제작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일상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시대를 이동하며 커피 바를 운영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제작한 '라이프 사이클: 비씨 커피'도 만날 수 있다.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한 네덜란드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데의 '스모그 프리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모듈형 주거 시스템 '걷는 집' 눈길

3D 프린트로 가방·신발 만들기도



'라이프 사이클: 비씨 커피'

영상으로 로데르담과 베이징의 스모그 프리 타워를 만날 수 있으며 타워에서 채집한 미세 먼지를 담아 제작한 '하나의 반자를 구매할 때마다 1000㎡의 깨끗한 공기를 선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스모그 프리 링'은 직접 만날 수 있다.

'마실 수 있는 책'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정화할 수 있는 종이필터로 구성돼 있다. 종이 한장이 약 100리터 가량의 오염된 물을 식수로 정화할 수 있다. '모빌리티 인 더 퓨처'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공간 확장과 자율주행을 컨셉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하며 관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래 쇼핑을 가능할 수 있는 '로스트 러기지'는 여행을 위한 짐을 없애는 대신 3D 프린팅 작업을 통해 컴퓨터 파일 하나로 트래블 키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3D 프린트로 만들어낸 가방, 신발, 선글라스, 지갑 등이 흥미롭다.

'미래를 창업하자'를 주제로 열린 3전시실에서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 가제보'는 컴퓨터 프로세스만을 이용해 디자인한 '정자'로 새로운 건축물의 형태를 보여준다.

4전시실 '아시아 더 퓨처'는 감성적인 작품들이 많아 편안하게 감상하며 느긋하게 쉬어가기 좋다.

필리핀의 '바버 캐비닛'은 코끼리 모양을 한 책상으로 다양한 쓰임새가 눈에 띄며 필리핀의 전통 가죽 '나파 헛'에는 직질 들어가 볼 수 있다. 높은 천장에 걸려 있는 동남아 각국의 해먹에 앉아 잠시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다.

사진 스폿으로 인기 높은 '500개의 아시아의 등'은 다양한 모양과 색감의 등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달걀 사진만 찍고 기기보다는 아시아 각국 디자인의 매력을 담은 '멋진'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도 좋다. 일본 전통 다도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등나무 의자 '링거벤치',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의자 시리즈 등에 앉아볼 수 있다.

태국 조명회사 '앙고'의 '트랜시버 스페이스'는 천연 그대로의 누에고치를 활용한 조명으로 다양한 각도로 굴절되는 빛의 마법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조명 아래로 들어가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느낌, 옆의 의자에 앉아 올라다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며 미묘한 '소리'들도 들을 수 있다.

전시는 23일까지 쉬는 날 없이 진행된다. 오전10시~오후6시.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몽중향'...이선희 다섯번째 개인전

24일까지
광주 동구 김녕과



아름다운 것과 소멸하는 것

그녀 작품의 시그니처는 세밀하게 그린 섬세한 표정의 여인이다. 우수에 젖은 듯, 사색에 잠긴 듯 다양한 표정의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화가 이선희 작가의 다섯번째 개인전 '몽중향'이 광주 동구 복합문화공간 김녕과에서 24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50호까지 중소형 작품과 100호 대작을 포함하여 20여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첫 전시부터 꾸준한 여인상을 그려온 이 작가의 작품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배경 없이 인물만을 도드라지게 그리며 공간 안에서 감정의 흐름을 공유하던 데서 한 발 나아가 꽃 등 다른 소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면은 훨씬 풍성해졌다.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및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하백련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9-3355.

"저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그림 속 여인을 통해 저의 생각과 삶을 스토리텔링하는

거주. 제 작품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는 그림일기라고 생각해요. 같은 소재지만 똑같은 여인이기 보다는 살아가는 환경 등이 변하면서 그림 속 여인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여인상은 작가 자신의 투영인 셈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연꽃 시리즈도 새롭다. '헛된 시간이 없는 것처럼'은 연꽃의 뿌리에서부터 꽃과 잎까지 전체적인 형태를 색채를 달리해 구성했다. 그밖에 다양한 신발로 화면을 가득 채운 '신발 시리즈'는 꽃과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및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하백련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개국 작가 300여명 천연염색 작품 전시

18~22일 '청출어람 2017, 나주'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 음악회도



천연염색 퍼포먼스

천연염색을 보급하고, 전라도 정명 999년을 기념, 나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청출어람 2017, 나주'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금성관 등 나주 곳곳에서 열린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천연염색 작품 전시, 천연염색 퍼포먼스, 체험, 공연,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행사를 아우른다.

천연염색 작품전은 타이완의 천연염색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천연염색 국제교류전', 제12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입상작 전시, 천연염색 작가 100인전, 천연염색설치전 등 다양한 전시가 개최된다. 4개국 300여명의 천연염색작가 참여하며, 작품 7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 밀레날레미술관, 영산포역사갤러리 외에도 나주 향교, 나주목사내아, 남파고택 등 문화재와 고택, 카페 등 70군데서 분산 전시된다.

참여 작가는 일본, 타이완, 프랑스 출신들이 참여하며, 총인원은 250명이 넘는다.

18일 오후 7시부터는 금성관에서 안숙선, 태진

아, 알리, 여자친구 등이 출연하는 '전라도 정명 천년 D-1 기념 음악회'가, '오후 8시부터는 전시 영상 미디어아티스트와 무용가 조가영씨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 '천년 나주의 색, 나주의 향연'이 열린다.

또 마을미술 체험, 천연염색 퍼포먼스, 금빛산인 축제, 한달에 한번 반상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